

대 회 사



전 동 용회장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전국의 양돈인 대표 여러분!

최근 농촌의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의 해결과 농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김주호 농림수산부장관님과 입법부의 농업 관계 국회의원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오늘 제 5회 전국 양돈인 산업합리화 결의대회를 비롯한 연관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회고해 보면, 불과 10여년 전만 하더라도 양돈업은 농가부산물을 이용한 영세한 부업규모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유통과 가공·소비를 비롯한 제반 관련분야 역시 전근대적인 기초단계에 지나지 않았읍니다.

그러나, 이제 양돈산업은 국가경제의 성장과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수요의 증가로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괄목할만한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여 마침내 축산업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식량산업으로 발전하였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전국 각지의 양돈인 대표 여러분은 불안정한 가격과동과 불합리한 제반 여건을 피땀어린 투지와 불굴의 인내로 말없이 극복하며 오늘의 양돈산업을 이룩한 살아 있는 주역들입니다. 우리는 동업자로서 그동안 수없이 겪어온 고충을 위로하고, 또 앞으로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지혜와 용기를 가지도록 서로를 격려하며, 그동안 양돈산업의 발전과 양돈인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지도하여 주시고 협력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사를 드리며, 또한 우리의 결의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모였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을 축하하고 우리를 성원해 주는 단상에 계신 농림수산부장관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는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전국의 양돈인 여러분 !

최근 우리 양돈업계는 불행하게도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하였던 매우 큰 폭의 불황을 맞이하는 어려운 국면에 빠져들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대부분의 양돈농가들이 계속적으로 사육두수와 시설을 늘림으로써 양돈농가 스스로가 불황을 조성한 무계획적인 생산활동에 기인된 결과로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현실입니다. 뿐만아니라, 급속한 공업화와 수출지향적 산업정책으로 인한 선진국의 통상압력과 무역불균형 및 교역 증진의 수단으로 다수의 농민이 생산하는 일부 축산물의 시장이 개방되어 양돈산업의 국제 경쟁력 시대가 바로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양돈인 여러분 !

본인은 이와같은 국내외적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당면과제들이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숙명적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와같은 국내외적 어려운 여건의 극복을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업계의 자율적인 공동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양돈농민 각자가 사육하고 있는 번식돈중 능력이 좋지 않거나 경제성이 저조한 모돈은 과감히 도태하여 적정규모를 유지함으로써 수급의 균형유지가 급선무입니다.

둘째, 산업의 국제경쟁력 면에서나 단위경영의 수익 면에서 양돈산업의 비교우위를 갖춰야 합니다.

생산적 측면에서 경영합리화와 생산성의 향상 등 전문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양
노동민 각자가 능력과 분수에 맞는 경영과 규모를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산업을
지원할 정책 역시 적어도 경쟁상대국과의 대등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개선되
어야 합니다.

즉, 정책은 시장개방에 앞서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국내산업의 보호측면에서 조세
정책과 보조지원정책 등이 경쟁상대국 수준으로 대폭 개선되어야 합니다.

전국의 양돈인 여러분 !

이제는 양돈인의 의식수준도 크게 향상되어 업계에 해결해야 될 과제가 발생되면 그 어느
축산분야보다도 뭉쳐서 해결코자 하는 공동 노력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양돈산물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과 수요개발을 위한 돈육소비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전
개되는 오늘의 전국 돼지고기 요리경연대회와, 전국 양돈인의 존재의지를 표명하기 위하여
양돈인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마련한 10억여원의 자금을 투입한 양돈회관의 건립 등은 우리의
의지를 더욱 빛나게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닥칠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의 경험과 상호
간의 격려와 의지를 한데 모아 이를 최소화하고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아갑시다.

친애하는 전국의 양돈인 여러분 !

본인은 오늘 이 뜻깊은 전국 양돈인 산업합리화 결의대회와 전국 돼지고기 요리 경연대
회에 즈음하여 우리 양돈인이 한국 축산의 선두주자로서의 확고한 위치를 다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와같은 의지와 열망을 구심점으로 하여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
하고 미래의 선진양돈을 향해 힘차게 전진합시다.

끝으로, 본인은 항상 우리 양돈업계를 성원해 주시고 지도·격려하여 주신 내외 귀빈과
관련기관 및 단체의 여러분에게 전국 30만 양돈인을 대표하여 충심으로 사의를 표하며, 양
돈인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에 안정된 번영과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987. 11. 24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
회장 전 동 용